

에너지신산업 분야 조기 성과 도출에 속도 낸다

정부가 올해 에너지신산업 분야에서 조기 성과를 도출해 낸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방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5개 부처는 지난달 15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정부 업무보고에서 해외진출 촉진, 제조혁신 30,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신산업, 주력산업 고도화, 연구개발 혁신 등에 대해 주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산업부는 특히 기후변화의 위기를 기회로 활용, 속도감 있는 정책으로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성과를 조기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장 초기 단계의 산업은 관련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보급사업도 확대해 자생적인 시장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전기자동차 서비스, 에너지저장 장치(ESS) · 에너지관리시스템(EMS) 통합 서비스, 전력수요자원 거래시장, 태양광 대여 등을 주요 시장확산형 사업 모델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전기자동차 서비스의 경우 민간 시장을 중심으로 유료 충전서비스, 배터리 리스 사업을 올해 신설 · 운영키로 했다. 에너지저장장치 · 에너지관리시스템 통합 서비스는 사업자 수익성 제고를 통해 민간투자가 활성화 되도록 관련 전기요금제도를 개선하고 주파수 추종 등 에너지저장장치 보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산업부 · 미래부 등 업무보고...시장 확산 · 창출 모델 제시 친환경에너지 세계시장 선점 위한 기술개발 등에 1조 투자

지난해 11월 개설된 전력수요자원 거래시장의 경우 발전자원 대비 수요자원의 경쟁 여건을 개선해 수요자원을 170만kW 수준으로 확보할 방침이며, 태양광 대여 사업은 지원 대상을 기존의 단독 주택에서 아파트로 확대해 총 5,000가구를 목표로 추진키로 했다.

또한, 산업부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통해 초기 시장을 창출하고, 이러한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장창출형 사업 모델로 제시한 것은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와 화력발전 온배수열 활용 분야이다.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의 경우 울릉도 지역을 대상으로 신재생 에너지와 ESS를 융합한 독립형 발전원을 시범 구축하고, 이를



산업부는 올해 전기자동차 서비스, 전력수요자원 거래시장 등 에너지신산업 분야에서 조기 성과를 도출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바탕으로 국내 2개 이상 도시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발전소에서 버려지는 온배수열로 영농시설 난방을 지원하는 화력발전 온배수열 활용 사업 모델은 당진화력을 대상으로 우선 착수하고, 추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부는 에너지 자립섬 프로젝트 등 해외 진출이 용이한 사업 모델을 중심으로 국제기금(GCF, ODA, ECDF 등)을 활용해 아세안 등 전력부족 국가에 진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한편 미래부는 올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 친환경에너지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개발과 핵심사업 발굴에 1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에너지 저소비 · 청정에너지 등 분야에서 2020년까지 매출 216조 원, 세계시장 점유율 13%, 기술경쟁력 세계 1위 대비 93%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특히 태양광, 연료전지, 바이오에너지, 전력IT, CCS(이산화탄소 포집처리), 이차전지, ESS+신재생 융 · 복합, 전기차 등 세계시장 선점이 가능한 핵심기술과 산업모델을 중점 개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개발기술 실증 및 사업모델 조기 발굴을 위해 올해부터 진천, 광주, 흥천에 친환경에너지타운을 구축하고 제로에너지 빌딩 등을 추진한다. 또한, 민간주도의 시장 형성 촉진을 위해 배터리리스사업을 추진하고 제주지역에 전기차 충전소를 확충할 예정이다.